

# 담배 없는 사회

이광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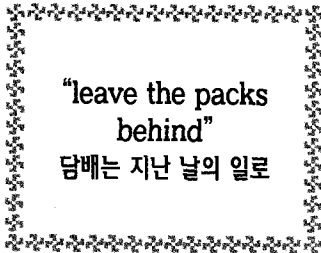
대한암협회 사무총장 · 과학평론가

오는 5월 31일은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정한 제12회 세계 금연의 날이다. WHO는 올해 금연 주제를 「이제, 담배는 그만 (cessation of tobacco use)」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담배는 지난 날의 일로(leave the packs behind)」로 정하고 2000년대 담배 없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담배가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흡연이 각종 암과 호흡기병을 비롯해서 순환기 계통의 병은 말할 것 없고 노화를 촉진하고 기형아와 문제아 출산율을 높이며 정력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피부부를 걸쭉게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

담배연기는 방이나 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어떤 물질 보다 건강을 해치는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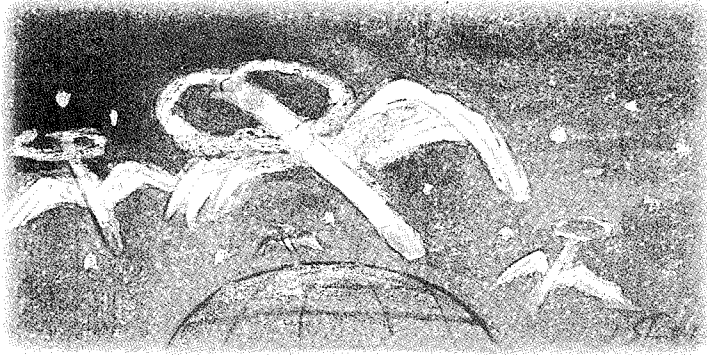


다. 특히 대도시 같은 공기가 오염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피해는 더욱 더 뚜렷하게 커진다.

흡연 피해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자신은 물론 피우지 않는 사람도 입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주부가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폐암 3.5배, 부비강암 2.6배, 뇌암 4배의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미국에서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던 스튜어디스 한 사람이 폐암에 걸리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항공사가 담배연기가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이 담배회사는 물론 흡연의 해로움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에도 있다는 것이다.

WHO는 현재 흡연으로 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매년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200만 명이 선진국, 100만 명이 후진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WHO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2025년에는 흡연관련 질병으로 죽어 가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인데 이 중 300만 명이 선진국, 700만 명이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도상국 700만 명 중 500만 명이 중국에서 나올 것이란 추산이다.

1997년 8월 24-28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0차 세계금연대회에서 장저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중국도 국가가 앞장서 담배추방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

담배는 이제 건강을 해치는 차원을 넘어 마약으로 규정지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96년 8월 23일 클린턴 대통령이 「담배는 마약」이라고 선언했고 담배

없는 사회 건설에 국가 통수권자가 진두지휘하고 나섰다.

담배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담배가 마약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마약이란 간단히 말해서 건강을 해치면서 습관성을 갖는 약물을 말한다. 담배는 이런 면에서 대마초나 마리화나 보다 더 몸쓸 마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지금 세계가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담배는 더 이상 기호품이 아니다. 담배는 어느 한가지 질병보다 우리의 건강을 좀먹고 죽음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위험인자이다. 그래서 담배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가리켜 「죽음을 파는 회사」로까지 부르고 있다.

담배는 이제 종언(終焉)을 고하고 있다. 우리도 담배 없는 사회건설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전근대적 담배전매사업에 하루 속히 손을 떼고 흡연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 †